

강진군 교육발전특구 선정...전남국제직업고 유치

교육부 시범지역 공모사업 선정 국·도비 336억원 확보

2026년부터 해외 유학생 한해 120명씩 360명 입학

강진군이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등 336억원을 확보했다.

강진군은 이번 사업을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 설립과 연계해 해외의 우수한 학생들을 강진군에 유치해 지역의 인재로 키우고 부족한 인력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2026년부터 한해 120명씩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개교 후 3년간 360명을 입학시켜, 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부족한 농축산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강진원 군수도 지역을 살리기 위해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게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을 건의했으며, 이번 강진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유치를 확정지었다.

당장 2025년부터 전남 유일의 농업분야 마이스터고인 전남생명과학고에 연간 15명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의 학생들과 함께 고등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의 전문 인재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군 교육발전특구는 ▲1단계 2024년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MOU 베트남 하우장성과 체결 ▲2단계 2025년 전남생명과학고 해외유학생 유치(연간 15명) ▲3단계 2026년 본격적인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과 운영을 가시화로 유학생 유치(연간 120명) ▲4단계 해외 유학생을 전남권으로 확산 등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해외 우수 유학생을 지역 맞춤형 정주 인재로 양성해,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기능을 살릴 것"이라며 "성공적인 해외 유학생 유치는 전남도 최초의 해외 우수 유학생 전문직업고등학교의 롤모델로서 중앙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이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등 336억원을 확보했다.

강진군은 이번 사업을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 설립과 연계해 해외의 우수한 학생들을 강진군에 유치해 지역의 인재로 키우고 부족한 인력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2026년부터 한해 120명씩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개교 후 3년간 360명을 입학시켜, 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부족한 농축산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강진원 군수도 지역을 살리기 위해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게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을 건의했으며, 이번 강진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유치를 확정지었다.

당장 2025년부터 전남 유일의 농업분야 마이스터고인 전남생명과학고에 연간 15명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의 학생들과 함께 고등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의 전문 인재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군 교육발전특구는 ▲1단계 2024년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MOU 베트남 하우장성과 체결 ▲2단계 2025년 전남생명과학고 해외유학생 유치(연간 15명) ▲3단계 2026년 본격적인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과 운영을 가시화로 유학생 유치(연간 120명) ▲4단계 해외 유학생을 전남권으로 확산 등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해외 우수 유학생을 지역 맞춤형 정주 인재로 양성해,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기능을 살릴 것"이라며 "성공적인 해외 유학생 유치는 전남도 최초의 해외 우수 유학생 전문직업고등학교의 롤모델로서 중앙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정남진장흥 토요시장 '어머니텃밭'에 올해 84명의 어르신이 참가한다. 김성 장흥군수가 지난해 열린 '어머니텃밭'을 찾은 모습. <장흥군 제공>

싱싱한 농산물 구입하고 시골장터 추억 담아가세요

정남진장흥 토요시장

'어머니텃밭' 84명 어르신 참여

"시골장터 향수와 추억 담아가세요."

장흥군은 올해 정남진장흥 토요시장 '어머니텃밭'에 84명의 어르신이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토요시장 어머니텃밭은 지난 2006년 시작해 18년간 토요시장 주요 상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흥읍과 전통시장이 없는 읍면에 사는 65세 이상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저마다 택호와 이름이 적힌 표를 착용하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산나물을 들고나와 판매한다.

가격을 흥정하고 덩은 얹어주는 전통시장의 정과 인심을 느낄 수 있어 방문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5일 장흥읍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정남진장흥 토요시장 어머니텃밭' 발대식을 열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어머니텃밭 사업내용과 근무수칙을 전달하고, 친절교육, 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 원산지 교육을 했다.

정남진장흥 토요시장은 오는 9일부터 11월까지 '오일장'과 겹치는 날을 빼고 매주 토요일 장이 열린다.

장흥군은 지도관리반 3개 조를 운영하며 명찰 달기, 외국인 물품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어머니텃밭이 토요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옛 시골 장터의 향수와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며 "장흥 토요시장이 더욱 친절하고 깨끗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직장인 올(ALL)바른자세' 프로그램 장면.

나주시 '직장인 운동 프로그램' 큰 호응

빛가람건강센터 올바른 자세 교육

나주시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운영중인 직장인 대상 운동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직장인 올바른자세' 프로그램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시간씩 5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근골격계 질환은 부적절한 자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목, 어깨, 허리 등 근골격계 부위에 통증과 이상감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에 노출되기 쉽지만, 시간을 내기 힘들어 방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센터는 프로그램 전·중·후별로 참여자의 전신 자세 측정 및 발형대-인바디 검사를 실시해 개인별 증상에 따른 맞춤형 운동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재활운동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다 체계적인 지도가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한 프로그램 참여자는 "내 몸에 걸맞은 운동으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다"며 "무엇보다 평상시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 후, 개선할 점 등을 보완해 7월 초 15명 가량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동렬 나주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건강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 삶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시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운영중인 직장인 대상 운동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직장인 올바른자세' 프로그램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시간씩 5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근골격계 질환은 부적절한 자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목, 어깨, 허리 등 근골격계 부위에 통증과 이상감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에 노출되기 쉽지만, 시간을 내기 힘들어 방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센터는 프로그램 전·중·후별로 참여자의 전신 자세 측정 및 발형대-인바디 검사를 실시해 개인별 증상에 따른 맞춤형 운동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재활운동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다 체계적인 지도가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한 프로그램 참여자는 "내 몸에 걸맞은 운동으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다"며 "무엇보다 평상시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 후, 개선할 점 등을 보완해 7월 초 15명 가량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동렬 나주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건강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 삶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고향사랑 기부금 전국 1위' 담양군, 기부 사업 아이디어 공모

발굴·사용처...4월8일까지 접수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전국 지자체 1위를 차지한 담양군이 기부금 사업과 관련해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기부사업과 지정기부사업 등으로 나뉘어 오는

4월8일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일반기부사업은 2023년 모금액 기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며, 지정기부사업은 기부금의 사용처를 먼저 정하고 나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방식이다.

기부금 모금을 위한 참신하고 매력적인 사업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 대상, 공모 내용,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누리집 공모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기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부자와 군민께 보답할 수 있는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강진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18억원 융자 지원

창업 3억·주택 7500만원 저리 대출

강진군이 귀농인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에 18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강진군은 지난달 27일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열고 상반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면접 심사를 가졌다. <사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예정자,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에게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농업창업 또는 주택구입 마련을 위한 자금을 융자한다. 사업대상자의 신용 또는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 보전 사업이다.

대상자의 사업계획, 추진 의지, 신용 및 담보평가 등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심층 면접이 진행됐으며 선정되면 연 1.5% 저금리로 17구당 영농기반



마련 농업창업 자금 3억원 이내, 주택 구입 자금 7500만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최영아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4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시행 지침 개정으로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의 자격조건 완화와 귀농 예정자의 사업 대상 추가 등 변경된 지침을 토대로 귀농 유치 활동에 힘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호 수변길마켓'이 최근 재개장한 뒤 연말까지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열린다. 지난 2일 다시 문 열 모습. <장성군 제공>

장성호 수변길마켓 다시 문 열었어요

12월까지 매주 토·일, 공휴일 운영

장성군은 '장성호 수변길마켓'이 지난 2일 재개장한 뒤 오는 12월까지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운영된다고 6일 밝혔다.

장성호 수변길마켓은 지역 농가 직거래 장터이다.

지역 농가가 생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 두릅

등 나물, 고로쇠 등을 만날 수 있다.

특산물로 만든 가공식품과 편백 제품, 켈트 공예품, 염색 제품 등도 마련됐다.

장성호 수변길마켓은 주말이면 평균 3000~4000명이 찾는 관광 명소이다.

수변길 입장료 3000원을 내면 같은 금액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어르신 '마음건강 이동상담'

상반기 10개 지역 경로당 찾아

나주시가 올해 상반기 10개 지역을 찾아가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이동상담'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마음건강 이동상담은 어르신 고독사 문제와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울감이 많은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조기 감별과 스트레스 측정, 심리 안정 등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왕곡면, 이창동, 영강동, 노안면, 남평읍, 세지면, 금남동, 다시면, 성북

동, 빛가람동 등 10개 지역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간다.

상담비는 무료이며, 우울증선별검사(PHQ-9)부터 스트레스 자가진단·뇌파검사(옵니핏), 위험군 발굴과 등록 관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이 신체 질환, 경제적 궁핍, 배우자 상실 등 다양한 이유로 정신 건강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무주택 청년 16명 매월 20만원 주거비 지원

화순군이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세자금으로 5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았거나 60만원 이하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6명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을 1년간 지급한다.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중 화순에 실거주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던 신청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이거나 정부·지자체의 주거 관련 사업 대상이 된 경우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